

11월 27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1월 27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약재 닫고 나흘째 상승 [다우: 8,726.61pt (+ 2.91%)]	26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경제지표 약재를 닫고 급등세로 마쳤음. 최근 낙폭이 컸던 기술주를 중심으로 저가매수세가 유입되었고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통주도 강세를 나타냈음.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주도 큰 폭으로 올라 랠리를 뒷받침했고, 특히 정부의 지원 기대감에 힘입어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가 폭등했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에 `대통령 경제회복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의장에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을 내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도 투자심리를 지지했음.
[WTI: \$54.44 (+ 7.23%)]	중국의 금리인하와 유럽의 경기부양책으로 경기후퇴에 따른 수요둔화 전망이 잦아든 결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였음. 이날 세계 2위 원유 소비국인 중국은 금리를 11년만에 최대폭으로 인하했고, 유럽연합(EU)은 2,00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놨음. 이날 유가는 주간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장중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반등에 성공했음.
개인소비지출 1%↓..`7년 최대폭 감소`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은 7년만에 최대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깊은 후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렸음. 상무부는 10월 개인소비지출이 전월대비 1% 감소했다고 밝혔고, 이는 지난 2001년 9월 이후 최대 감소폭임.
11월 소비자신뢰지수 55.3으로 하향 확정	11월 소비 심리는 추가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로 인한 주가 폭락과 신용여건 악화, 주택가격 하락, 실업률 상승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증거임. 미시간대학은 11월 소비자신뢰지수가 예비치인 57.9에서 55.3으로 하향 확정됐다고 밝혔고, 이는 전월의 57.6보다 낮은 수준임.
10월 신규주택판매 `17년 최저`	신규주택판매는 17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음. 상무부는 10월 신규주택판매가 연율 43만 3,000채(계절조정)로 전월대비 5.3% 감소했다고 밝혔음. 이는 지난 1991년 이래 최저치로 마켓워치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44만 1,500채도 하회한 수준임.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40.1% 급감한 수치임.

제목	주요 내용
10월 내구재주문 `2년 최대폭 급감`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요가 크게 위축된 결과로서 내구재 주문은 2년래 최대폭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무부는 10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대비 6.2% 감소했다고 밝혔고, 이 같은 감소폭은 2년래 최대 수준임.
주간 고용시장 침체 `여전`	4주 평균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5년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미국의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가 더욱 고조되었음. 노동부는 미국의 지난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22일 마감 기준)가 전주대비 1만4,000명 감소한 52만 9,000명(계절조정)을 기록했다고 밝혔음.
시카고 제조업 경기 `26년 최악`	시카고 지역의 제조업 경기는 26년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구매관리자협회(PMI)는 11월 제조업 지수가 전월의 37.8에서 33.8로 하락했다고 밝혔음.
EU, 2천억유로 경기부양책 발표	2,000억유로는 EU 27개 회원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5%에 해당되는 규모로 당초 예상을 뛰어넘은 수준. 각 회원국이 총당해야 할 액수는 1,700억유로로 나머지 300억유로는 EU 기금과 유럽투자은행(EIB) 예산에서 투입.
中싱크탱크 "중국, 미국 채 추가 매수 자제해야"	최근 달러 강세가 단기적인 만큼 중국이 더이상 미국 국채를 사들여서는 안된다고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CASS) 이코노미스트가 밝혔다고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 유용당 이코노미스트 "일부에서는 달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더 살수 있는 기회라고 하지만 달러는 단순히 금융위기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실제 가치가 오르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설명.
中 11년만에 최대폭 금리인하..경기부양 `박차`	26일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금리인 1년만기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각각 1.08%포인트 인하.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6.66%에서 5.58%로, 예금 금리는 3.60%에서 2.52%로 각각 하락.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인하폭은 각각 지난 1997년과 9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화된 금리는 내일(27일)부터 적용.
엔화, 中 기준금리 대폭 인하로 강세 `주춤`	일본 엔화가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달러와 유로화대비 강세분을 일부 반납. 달러-엔은 중국의 금리인하 발표 전 94.90엔을 기록한 후 금리인하 발표 이후 95.20엔까지 상승. 유로-엔 역시 123.05엔에서 123.55엔으로 소폭 상승. 다만, 여전히 0.7%선의 낙폭을 유지하는 상태.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4년반만에 감소	달러-원 환율이 오르면서 3분기 내국인 출국자수가 312만명으로 전분기 313만명에 비해 감소한 이유가 컸고, 환율 상승에 따른 리스크 회피 심리도 신용카드 결제를 주저하게 만든 요인.
철강수요 감소, 해운 이어 조선까지 `도미노` 여파	세계적인 철광석 수요감소가 해운업을 거쳐 조선업에까지 불황여파를 미치고 있음. 글로벌 경제위기로 중국뿐 아니라 여타 지역 철광석 수요가 감소하면서 철광석 운반 매출 비중이 큰 해운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중소 조선소는 벌크선 수요 줄어가 줄어든데다 유동성 위기와 시황악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